

YTN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 타워 |
TEL. 02.398.8000 | 팩스 02.398.8585 | 휴대폰 YTN 뉴스
청취 200-2424

새 봄, 새 출발
YTN



↑↑↑
N
North

←←←
W
West

→→→
E
East

↓↓↓
S
South





YTN은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품격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24시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학회원들이 선정한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 YTN.
YTN은 최우수 공정성의 기반 위에 최고의 뉴스 콘텐츠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YTN이 야심차게 준비한 차별화된
콘텐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C O N T E N T S

커버스토리	콘텐츠가 경쟁력이다 품격있는 뉴스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끝없는 노력을 ...	002
커버스토리1	확 바뀐 화면, 이유는 바로 ... 차현주 스키장에서 날씨 중계, 짜릿합니다 이기주 생생한 화면을 잡았습니다 김웅래 VR 스튜디오 활용 유운정 본격적인 장애인 방송 시작되다	004 006 008 010
커버스토리2	음악이 있어 더욱 돋보인다 김은희 음악은 내 손안에 조해인 (YTN웨더) 날씨와 음악이야기 전진영 (YTN라디오) 뉴스&뮤직, 전진영입니다	012 014 016
커버스토리3	콘텐츠 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최자윤 소셜 스토리텔링으로 감성 소통을 심미선 새로운 변신 콘텐츠로 말한다	018 020
핫 이슈	세계 어디든지 YTN만 봐요 용성욱 아프리카에서 만난 글로벌 채널 YTN	022
ZOOM IN1	YTN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강원석 범죄예방은 SOS 안심서비스로	024
ZOOM IN2	김정아의 공감인터뷰 김정아 무엇을 지향하고 담아낼지 고민해야	026
사이언스 TV	새로운 변신 콘텐츠로 말한다 [김생민의 프로파일] 파헤쳐라, 알려주지 않은 숨은 진실 [김학도의 판도사]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들, 그 속에 반전이 [박상원의 WHY&HOW] 색깔 있는 과학 시사 프로그램이 되기를	028 030 032
동호회 활동	변재철 남대문 산악회에 놀러오세요	034
게시판	게시판	035

스키장 날씨 중계, 짜릿합니다

차현주 | 기상캐스터 과학기상팀



네, 포천 스키장에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태평로 중계 말고 재미있는 곳 없을까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때마다 캐스터는 항상 회사 바로 뒤인 태평로로 출동한다.

“이번 중계는 스키장으로 간다! 이번에 네가 직접 타고 내려올 거라 재미있을 거야!”

이번 겨울 들어 한 번도 스키장을 가지 못해서 스키장, 스키장 노래를 부르고 있던 터라 귀가 번쩍 뜨였다.

내 보드 실력이 생방송에 활용될 만큼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건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직접 보드를 타며 중계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카메라 동선이 갈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어서 방향을 잘 조준해 카메라 앞까지 도달해야 했다.

하지만 일 년 만에 타는 스노보드는 내 말을 절대 들어 주지 않았다.

엉덩방아 찢기를 수차례, 생방송시간은 다가오고 설상가상으로 점 점 늘어난 사람들이 카메라 동선까지 매우기 시작했다. 이뿐이라, 리프트는 너무 느려서 한번 내려온 뒤에는 보드를 들고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초조함에 허둥지둥하는 날 대신해 중계부 선배들은 끊임없이 뛰어 다녀야 했다. 보드를 들고 언덕을 험해대며 함께 뒀 선 배를 비롯해, 내가 내려오는 카메라 동선을 따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제해 주신 카메라 선 배. 그뿐만 아니다. 계속 넘어져서 울상이 돼 있는 날 다독거리며, 넘어지면 넘어 지는 대로 재미있는 거니까 부담 갖 지 말라고 모든 선배가 파이팅을 불 어넣어 주었다. 생방송이라는 부담과 동시에 격한 두근거림으로 다가왔던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입니다.
저도 제 보드 실력에 제가
놀랐습니다!!!”

드디어 인터컴으로 앵커멘트가 흘러나오 고 나는 서서히 보드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오면서는 솔직히 너무 일찍 넘어지지 만 말자는 생각이었다. 언덕을 내려오는 10초 남짓한 시간이 마치 10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좌우로 언덕을 가로질러 내려오길 몇 회, 결국 무사히 다 내려왔지만, 내려와서 눈을 드니 헉. 카메라는 여전 히 멀리 있었다. 그런데 개도 급하면 담을 넘는다 했던가. 수준급으 로 보드를 탄다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점프’기술이 갑자기 구사 되기 시작했다. 폴짝폴짝 뛰어 결국 카메라 앞으로 무사히 안착했 다. ‘차현주 캐스터도 보드를 꽤 잘 타네요?’ 라는 앵커 선배의 멘트 가 그렇게 반갑게 들릴 수가 없었다. 진심으로 이 말이 튀어나왔다. “그렇게 말입니다. 저도 제 보드 실력에 제가 놀랐습니다!!!”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벅찬 설렘이었다. 중계 끝난 뒤의 반응 도 칭찬 일색이어서 더 뿌듯했다. 하지만 이 뿌듯함은 방송을 모니터한 뒤엔 중계 선배들을 향한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영상이 그렇게 다양하고 생동감 넘칠 수 없었다. 조그만 헬리콥터에 카메라를 매달아 띄우는 항공촬영에 카메라를 직접 몸에 매달고 촬영한 영



상까지, 리포트에 ‘YTN 차현주’라는 이름만 나가는 것이 너무 죄송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한 장면을 위해 온갖 고생 을 마다지 않는 선배들의 그 열정은 익숙함에 빠져있던 내게 새로 운 활기로 다가왔다.

어느새 입사 2년 차. 처음 입사했을 땐 정말 마이크만 옷에 차도, 카 메라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았었다. 내 날씨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이 방송만 봐도 절로 행복해지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긴장 과 설렘이 어느덧 익숙하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방송 수십 년 차 임에도 여전히 열정이 넘치는 중계팀 선배들을 보고서야 인정하 게 됐다. 이번 스키장 중계는 내게 단순히 새로운 시도를 넘어 초심 을 다시 상기시키는 시간이었다. 또 방송은 혼자가 아닌 모든 스텝 의 최선의 노력이 더해져 만들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새 삼 더 깊이 깨달았다. 이번 스키장 중계에서 보고 배운 것, 또 방송 에서 얻은 즐거움은 분명 단순히 스노보드에서 오는 즐거움, 그 이 상이었다.

입체적인 날씨 중계, 다양한 시도가 있어 가능했다

이기주 | 중계부

GOPRO 카메라로 생생한 화면을 잡았습니다

생생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중계부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끝이 없다. 계속해서 진화할 뿐이다. 최근 나로호 발사 중계에는 헬리캠을 사용해 전체적인 부감과 다이내믹한 영상을 만들었고,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중계차 폴대에 카메라를 고정해 촬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들의 허를 찌르기도 했다. 상상하면 그 이상을 만들어 내는 중계부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도전정신이 있기에 가능하다. 스키를 타면서 생생한 영상을 촬영한 중계부 이기주 차장을 만났다.

스키장 날씨 중계에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들었는데

차현주 캐스터가 직접 보드를 타면서 생방송으로 날씨를 중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헬리캠을 이용해서, 스노모빌 뒷자리에서, 직접 스키를 타면서 촬영했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스키를 타면서 보는 영상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보면 되지요.

스키를 타면서 촬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촬영했나요?

GOPRO 카메라를 헬멧과 무릎, 스키플레이트 등 3군데에 장착하고 리프트 탈 때부터 촬영을 시작해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온몸에 카메라를 장착했기 때문에 걷고 뛰고 스키를 타는 등 모든 것이 곧바로 촬영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라이딩을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머리와 무릎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면 앵글이 어지러워 방송에 내 보낼 수 없습니다.

처음엔 이런 문제로 낭패를 본 적이 많았지만 시행착오 끝에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촬영된 화면은 중계차에서 적합한 부분만을 편집해 생중계 시 자료화면으로 바로 송출합니다. 스키 타라 방송하랴 바쁘게 움직이지만 생중계 화면을 바로 송출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몸에 부착하는 GOPRO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변화된 점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ENG 카메라로 촬영기자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했지만, 지금은 고화질HD 화면을 훨씬 쉽게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헬기에, 스키와 자전거를 타면서, 수중에서, 위험한 장소 등 어디서든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화면을 있는 그대로 잡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GOPRO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헬기와 스키에 부착했던 GOPRO 카메라가 모두 회사 장비가 아닌 개인 물품입니다. 회사의 정식 촬영장비로 등록되어 널리 활용한다면 콘텐츠 확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 스튜디오 (Virtual Reality) 활용

김응래 | 제작2팀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평상시처럼 아이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때 속보 문자가 떴다.
나로호 재발사 시기가 결정됐다는 내용이었다. 딱이었다. 나로호 재원을 3D 제작물을
설명하면 시청자들에게도 더 와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템 보고 후 곧바로 제작에 들어갔다.
먼저 기획 단계. 그래픽 담당자와 머리를 맞댔다. 나로호 옆에 엘리베이터 타워를 세우고
기자를 엘리베이터에 세우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나로호를 설명하자는 취지였다.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 작은 소품도 만들었다.
나홀 정도 걸려 그래픽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나로호는 물론,
나로호 속에 탑재된 위성과 모터 등 구성품을 표현한 그래픽의 완성도가 높았다.
이제 녹화 차례. 녹화에 동원(?)되는 10명 가까운 동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리허설은 필수다.



오후 1시 반, 최소한의 인력으로 리허설을 했다. 그래픽은 잘 구현되는지,
기자 위치는 어디가 좋은지, 멘트 수정은 필요 없는지 등등. 역시 수정할 부분이 많았다.
이제 본 녹화. 필요한 인력 섭외(^^)에 들어갔다. PD, 부조 감독, 카메라 감독, AD... 모든 사람이 모였다.



“기자 스탠바이. 큐”

리허설을 그렇게 했는데 NG 연발. 식은땀이 났다.
급기야 NG 한 컷 당 500원을 걸기로 했고... 500원을 아끼겠다는
굳은 의지로 NG 없이 녹화를 마쳤다. ^^

VR 리포트는 일반 리포트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 때문에 출입처가 있는 기자가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다 많은 기자가 적극적으로 VR 리포트를 제작하려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기자는 취재를, PD는 기획을, 그래픽 담당자는 그래픽을, 기술 담당자는 실시간 연동 작업만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보다 편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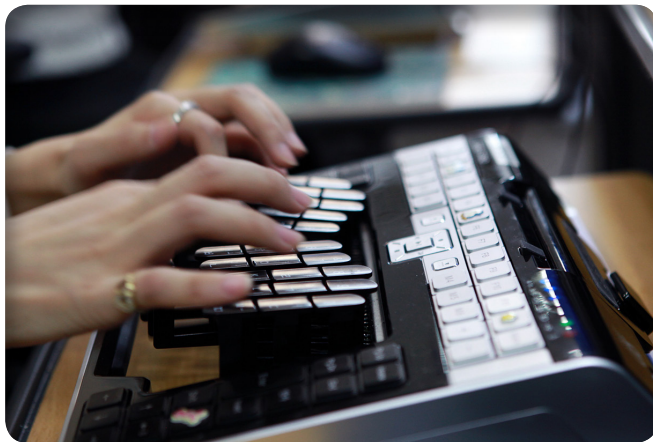


Virtual Reality Studio



본격적인 장애인 자막방송 시작되다

유운정 | 편성운영부 자막방송팀



“뉴스다운 뉴스를 보니, 너무 행복했다.”

왜 자막방송 필요한가요?

“이제 가족들이 웃을 때 나도 함께 웃을 수 있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막방송이 처음 실시된 99년 어느 청각장애인이 한 말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자막방송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막방송은 단순한 의사전달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한 청각장애인 주부는 지난해 인터넷신문에 올린 글에서 자막방송을 한동안 못 보다가 새로 장만한 LCD TV에서 자막방송을 다시 보았을 때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자막방송 설정을 하고 뉴스를 보는데, 아나운서의 말이 그대로 자막으로 나온다. 아, 정말 얼마 만에 뉴스다운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다. 황홀경에 빠져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뉘 놓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너무 행복했다.”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난청자,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어린이들의 한글 공부, 기차역 등 소음이 심한 공공 장소에서의 TV 시청에도 유용합니다.

키보드가 독특한데요

속기키보드의 입력 방식은 한 글자를 한 번에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자를 칠 때 일반키보드는 ㄱ, ㅣ, ㅁ 3타를 치지만 속기키보드는 ㄱ, ㅣ, ㅁ 세 개의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속기키보드는 3벌식으로 초성과 중성, 종성을 한 번에 입력하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막방송 설정을 하고 뉴스를 보는데,
아나운서의 말이 그대로 자막으로 나온다.
아, 정말 얼마 만에 뉴스다운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다.
황홀경에 빠져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뉘 놓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너무 행복했다.”



자막 방송하는 속기사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국가자격증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막방송 속기사로 일하려면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스마트속기협회/한국 자막방송기술협회의 '자막방송 속기 연수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실시간 자막방송을 담당하는 속기사는 거의 다 1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몇 분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지요?

자막방송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근무인원은 총 3명으로 하루에 2명이 근무합니다. 한 명이 4일 일하고 2일씩 쉽니다.

자막 방송하기에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전문가 출연이 많은 '뉴스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YTN 자막방송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최대 장점은 방송 3사보다 자막방송 딜레이 시간이 짧습니다. 보도전산을 활용해 말하는 즉시 화면에 곧바로 자막이 나오는데 YTN 기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했습니다. 단축된 시간이 2-3초에 불과하지만 자막방송을 하는 사람에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막방송을 본 시청자의 감사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자막방송 시청 방법, 자막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자주 옵니다. 가끔 고마움을 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악은 내 손안에 ...

| 김은희 | 편성운영부 음악실 |

드디어 면접 당일. 초면이 아닌 면접관님 한 분이 반갑게 인사해주신다. 바로 장석문 선배, 사실 첫 면접이 아니다. 두 번째 입사지원서를 내고 다시 찾아간 YTN타워. 장 선배는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다. 앗, 더 떨린다... 떨려도 관참은 척 테스트를 마무리했다. 꼭 입사해야겠다는 불타는 의지를 비추고 나오자/ 했지만 두 번째 면접이라 그런지 질문도 많이 안 하셨고 그땐 정말 또 떨어진 줄 알았다. 그렇게 힘들고 힘들었던 두 번의 면접을 거쳐 나의 YTN 생활은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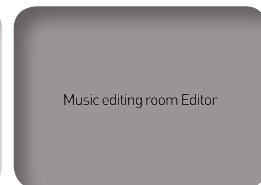
입사한 지 이틀날, 사이언스 피디가 음악의뢰를 했다. 열심히 작업한 뒤 연락하려고 보니 연락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사이언스와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 음악실과 종편실을 뛰어다니며 선배께 묻고 물어 무사히 음악을 전달할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이런 일이 빈번해 기억력이 좋아질 정도. 지금은 이미 많은 분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내 작업실은 사랑방이 된다. 항상 손님들이 북적북적. 음악실은 YTN을 비롯한 사이언스, DMB, 라디오, 웨더까지 모든 프로그램의 음악을 맡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다.

음악실은 세 명이 모든 일을 맡는다. 대장 장석문 선배와 넘버투 원종훈 선배, 그리고 막내인 나. 편성운영부에선 음악실을 '대장과 돌마니들' 혹은 '넘버원, 투, 쓰리' 라 부른다. 원 선배와 같이 퇴근인사를 하게 되면 신성원 차장께서는 "대장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시곤 한다. (그만큼 음악실은 톡톡 뭉쳐 다닌다는 얘기!?)

음악실에선 단지 음악만 넣는 것이 아니다. (물론 더빙, 믹싱, 효과까지 맡아 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상에 맞는 음악을 선곡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방송음악을 모르거나 그냥 대충 어울리는 거 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는 처음 일을 배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단지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빠르기, 자막, 멜로디, 색감, 길이까지 많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일을 하다 보면 10초짜리 짧은 타이틀 음악을 고르는데 1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 영상에 딱 맞는 음악이 단 한 번에 찾아질 때가 있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애먹는 일이 있을 때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피드다. 보도채널인 만큼 시간이 생명이다.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한 음악을 찾아 주어야 하므로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다. 음악은 인간의 예술이라 했던가. 제작프로그램 하나를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을 느낀다. 그만큼 집중력과 빠른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더빙실이 딸린 작은 작업실. 컴퓨터 한 대와 스피커, 믹서가 전부인 나의 작업실에서 어떤 날은 점심시간 빼곤 나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나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영상의 빠르기,
자막,
멜로디,
색감,
길이까지
많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일을 하다 보면 10초짜리 짧은
타이틀 음악을 고르는데
1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사회초년생인 나를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장석문 선배와 어렵고 힘든 일 항상 도와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원종훈 선배께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든든한 편성운영부까지.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YTN의 모든 음악을 담당하는 음악실! 무한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YTN웨더 날씨와 음악이야기

| 조해인 | 뮤직코디네이터 〈헬로웨더_날씨와 음악이야기〉출연 |



‘누가 우리만큼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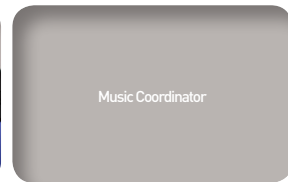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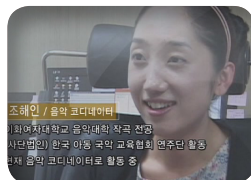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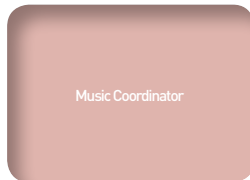
YTN Weather와의 만남_음악이 전부였던 내 삶에 어느 순간 날씨가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 우리 생활과 ‘음악’만큼 밀접한 게 또 있을까. 산업 전반에 걸쳐 주연이든 조연이든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 것이 음악이다. 당장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곳에서도 달콤한 노동요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지 않은가. 한참 음악 산업의 매력에 푹 빠져있을 즈음, 바야흐로 2011년 여름. 나만큼 자금심으로 뚫돌 뭉친 날씨 전문 방송을 만나게 되었다. 날씨에 따른 음악 추천/〈날씨와 음악이야기〉의 출연을 제의받은 것. 음악이 전부였던 내 삶에 어느 순간 날씨가 들어왔다.

Episode_멋진 직업만 생겼느냐고? No No 더 멋진 친구도 생겼다!

“오늘은 종일 비가 온대요~” “해인씨, 밖에 눈이 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10시쯤이면 당동~하고 울리는 반가운 문자. 엄마? 애인? 혹시 나를 흠모하는 그 누군가일까? 두근두근 문자를 확인한다. 아하, 모두를 제치고 당첨! 웨더의 김하나PD!

PD님이 날씨로 Ready/를 외치면 나는 음악으로 Go/화답한다.“하하, 네, 피디님, 음악 선곡 바로 들어갈게요~” 내 생각에 날씨는 다분히 사적인 콘텐츠다. 날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날의 기분, 요즘의 관심사에 대해 공유하게 되고 친근하게 수다를 떨게 된다. (아마 이 때문에 아직은 서먹한 사이에서 주로 날씨에 대해서 대화를 하나보다) 게다가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이야기까지 더해지니 ‘누가 우리만큼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국하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사계절을 김하나PD와 나누면서 느낀 점? 웨더는 가족이고, 애인이고, 친한 친구다!



All about 조해인_팔방미인 해인씨! 도대체 직업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작가, 음악감독, 가수, 뮤직코디네이터, 성우, 캐스터... 한마디로 나는 음악으로 즐겁게 활동하는 ‘제너럴리스트’이다. 그룹 〈가내수공업〉부터 전통음악뮤지션과 함께하는 〈남.여.울〉까지 장르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정규앨범과 싱글앨범도 발매했다. 홍대에서 인디뮤지션으로 공연하고 대학로에서는 뮤직퍼포먼스(다락)의 음악감독이자 배우로 출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독도아리랑〉을 작곡해 수상했고 도쿄 대지진을 추모하는 작업을 일본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도 계속해서 메시지가 있는 음악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음악 코디네이터? 잘 고른 매장 음악 한 곡 열 명의 직원 부럽지 않다?!

“오늘도 Brand Radio 뮤직코디네이터 조해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녹화가 시작되면 언제나 상큼한 MC,유라씨가 나를 뮤직코디네이터라고 소개해준다. 뮤직코디네이터란 방송, 영화 광고의 배경음악 혹은 매장의 음악을 선곡하는 음악전문가를 말한다. 한마디로 ‘브랜드 음악 컨설팅’! 이를 위해서는 매장환경을 분석해야 하는 데 중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날씨이다. 소비자는 날씨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이 좌우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 비 오는 날, 무더운 날 각각 매장이 입는 ‘음악의 옷’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YTN라디오 〈뉴스&뮤직, 전진영입니다〉

전진영 | 아나운서 YTN라디오

뉴스&뮤직, 전진영입니다 / YTN라디오 월~금 12:10~14:00 / 제작·진행_전진영, 작가_문병현



뉴스와 음악, 과연 어울릴까요?

크게 라디오를 켜고

보도전문, 뉴스전문 채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닐까. 사실 주말편성으로만 존재했던 뉴스&뮤직 프로그램을 내 이름을 걸고 평일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건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엄습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진행뿐만 아니라 제작도 해야 한다네! 말 그대로 나에겐 방송 경력 상 첫 ‘도전’인 셈이었다. 2011년 가을 개편부터 35분이라는 짧은 방송 시간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한 〈뉴스&뮤직, 전진영입니다〉는 다행히도(?)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낮 12시 10분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의 확대 편성으로 본격적으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뉴스와 음악, 과연 잘 어울릴까? 사실 지금도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매일 고민한다. 그날에 살펴볼 가장 굵직한 뉴스 두 가지를 선정해 자세히 풀어주는 미니 코너 후 그 뉴스와 어울릴만한 음악을 찾는 건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적절한 음악을 찾았을 때의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거기에 정말 적절한 선곡이라는 청취자들의 칭찬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면 보람 지수 급상승! 이런 걸 보면, 뉴스와 음악은 제법 잘 어울리는 사이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잘 어울리는 사이로 만들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다.

그땐 그랬지

〈뉴스&뮤직, 전진영입니다〉의 선곡 방향은 YTN 라디오의 주 청취층과 프로그램 진행자인 나의 연령대의 중간 지점인 - 8090 가요가 중심이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취자들과의 이야기도 그 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쪽으로 흐른다. 1, 2부는 주로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지만, 3, 4부는 주로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선곡도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거의 전적으로 청취자들에게

맡기고, 문자 사연 소개로 이야기를 이끌어다가다 보니 청취자 참여율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특히 매주 월요일 〈추억이 담긴 라이브 카페〉 코너는 그 때 그 시절, 우리가 그랬었지.하며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진행돼 청취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내가 과연 이런 벅찬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는 라디오 DJ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다. 빵을 너무 좋아한다는 나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듣고 부모님과 함께 2대가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프로그램 이름이 새겨진 케이크와 갓 구운 빵을 회사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읽기 좋은 책들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직접 비누 공방을 운영하는 워킹맘께서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을 한다며 직접 만든 아로마 비누를 선물로 보내오시기도 했다. 선물도 선물이지만, 사실 애청자들이 바쁜 와중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 한 통 한 통이 나에겐 가장 감사한 선물이다. 청취자들은 내 목소리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히려 내가 그 덕분에 더 위로받고 더 힘을 얻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아기가 태어나 씩씩 자라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함 혹은 고마움을 전하고,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고, 아마 수많은 방송인 중에 라디오 DJ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아닐까. 그 특권을 자극히 평범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인지를 실감하고 있다. 하루의 정 가운데, 정오라는 시간, 숨 가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 일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간에 청취자들이 지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마이크 앞에 앉는다.

콘텐츠의 脈, 소셜 스토리텔링으로 감성 소통을……

최지윤 | 연구원 K 기술협력팀

오늘날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콘텐츠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콘텐츠,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아내 즐기고 기억에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생산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선도 정보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감동을 주는 감성적인 면도 고려하게끔 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감성을 자극하여 기억에 남는 콘텐츠로 선택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스토리텔링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토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스토리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지식보다 어제 본 드라마의 줄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스토리 형태의 내용을 기억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인지 심리학자인 로저 생크와 로버트 아벨슨에 따르면 우리 뇌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기억을 스토리 형태로 저장하며 인간의 뇌에는 ‘스토리를 저장하는 영역(Episodic-memory region)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인간의 지식 축적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에 참여하는 현재성, 현장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스토리의 ‘행위’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는 참여를 통한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인간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려는 기업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고객들을 유인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단 마케팅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고객과 감성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도 스토리텔링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스토리는 고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명품이나 브랜드들은 자신들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꿈과 감성을 전달합니다. 인간이 바로 꿈을 가지고 스토리로 표현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텔링에 민감합니다.

소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의 현장성에 상호작용(interactive)이 강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효과가 비단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에게 미치며 또 그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며 스토리텔링이 창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소셜 스토리텔링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픈, 소통, 공감, 참여, 연결 등의 특징들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지, 이 모든 과정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브랜드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뉴스 콘텐츠에 적용하여 독특한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셜 스토리텔링을 통해 뉴스 콘텐츠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YTN만이 가지는 독특한 소셜 스토리텔링으로 시청자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 기업스토리텔링의 예 —

프랑스의 유명한 생수회사인 ‘에비앙’이 있습니다.

에비앙의 역사는 ‘예수의 기적’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의 산자락에 있는 마을이었던

에비앙에 신장결석을 앓던 후작이 요양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으로부터 약효가 있는 우물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물을 구해서 마셨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는 우물물이 왜 그의 병을 낫게 했는지 원인을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알프스의 눈과 비가 15년에 걸쳐 녹고 어는 과정에서

매우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정화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1878년에 정식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 상업화한 물이 바로 에비앙입니다.

사실 후작이 앓았던 신장결석은 아무 물이나 많이 먹으면 돌이 빠져나가 낫는 병으로

에비앙의 우물물이 특별히 약효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비앙의 스토리는 에비앙 물을 단숨에

세계적인 ‘먹는샘물’의 지위에 올려놓았고 세계적인 생수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화된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 YTN, 과학 한류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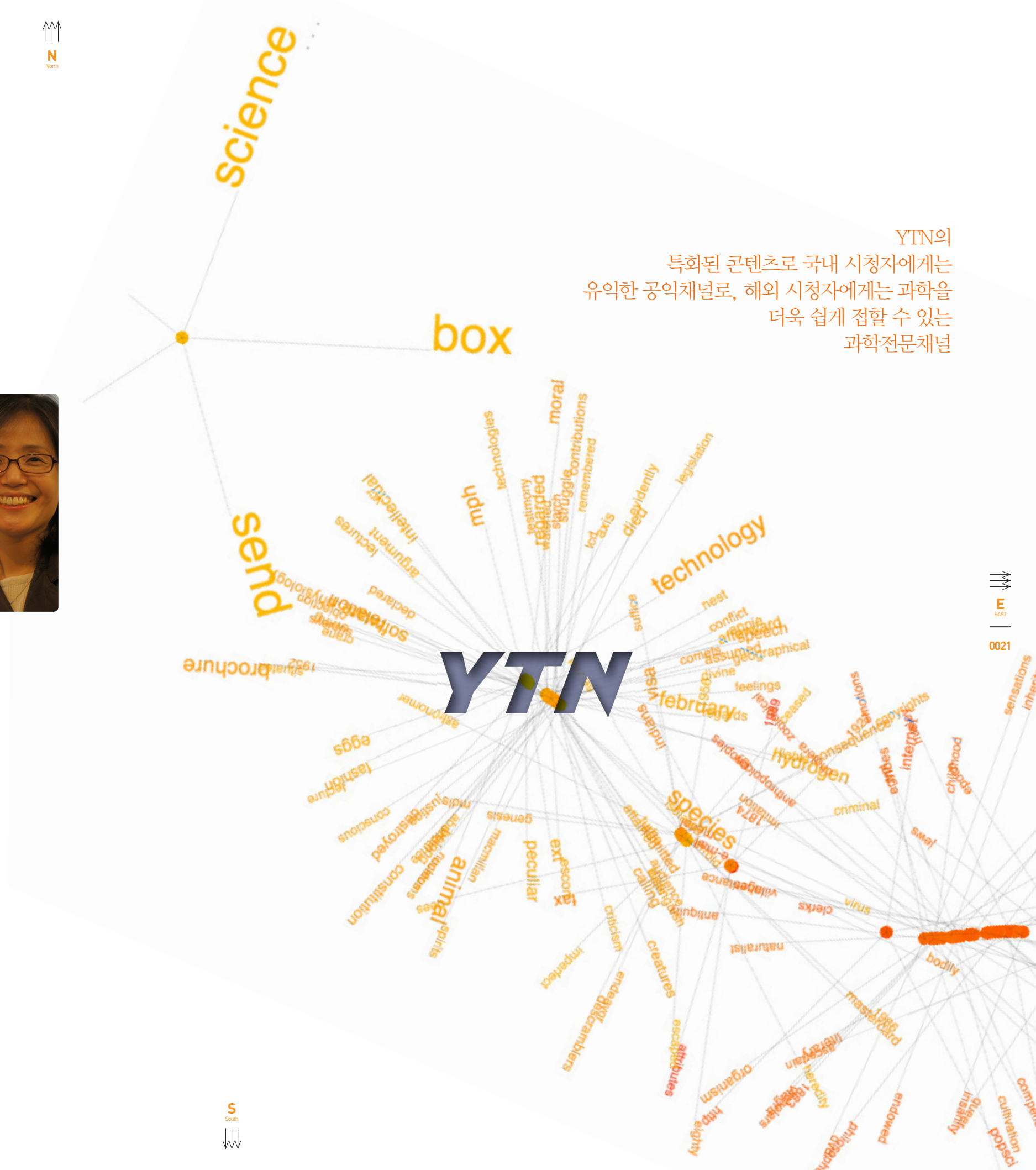
내셔널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BBC Knowledge는 세계적으로 꽤 알려진 과학전문채널이다. 이들 채널은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과학콘텐츠를 유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과학콘텐츠가 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이 낮기 때문이다. 문화적 할인이란 콘텐츠의 가치가 다른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반감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과학전문 채널들은 콘텐츠가 갖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자국 시청자뿐만 아니라 해외 시청자를 겨냥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해 왔고, 그 결과 세계 과학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 전문채널이 국내 시청자만을 겨냥해 채널을 운영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해외 시청자로 시청자의 규모를 넓힌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YTN사이언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내 시청자뿐 아니라 해외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과학 한류를 실현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우선 YTN사이언스에 대한 국내 시청자들의 인지도를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청 여부를 떠나 채널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시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YTN사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평균 프로그램 품질평가 점수는 70점을 웃돌고 있다. 프로그램 품질평가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 문제는 프로그램 품질이 우수한 것이 비해 시청률 및 시청인지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YTN사이언스는 시청자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홍보전략 및 시청자 참여를 통한 채널인지도 제고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다음 YTN사이언스가 해외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YTN사이언스만의 특화된 콘텐츠가 필요하다. 기존의 과학 전문채널들의 특화된 영역은 바로 자연이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YTN사이언스는 기존의 과학 전문채널과 차별화되게 과학 및 의학정보 프로그램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학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세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과학정보, 의학정보의 유용성을 말해준다.

이제 YTN사이언스는 도약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7년이 과학콘텐츠 불모지에 새로운 과학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5년은 YTN사이언스만의 특화된 과학콘텐츠로 국내 시청자에게는 유익한 공익채널로, 해외 시청자에게는 과학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이다. 다양한 장르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과학콘텐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채널을 특화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심미선 | 교수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YTN의
특화된 콘텐츠로 국내 시청자에게는
유익한 공익채널로, 해외 시청자에게는 과학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전문채널



A f r i c a

아프리카에서 만난 글로벌 채널 YTN

지구 반대편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YTN 뉴스를 한국에서와 똑같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신선한 즐거움이었다. 그간 20여 편의 다큐멘터를 제작하면서 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를 취재하였지만 아프리카 촬영은 처음이었다. 아프리카는 방문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아프리카 취재경험자도 주위에 없다 보니 인터넷 카페를 참고하고,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항열 예방 접종을 미리 했다. 비자 발급도 취재 일정에 맞추어 주한나이지리아대사관의 도움으로 급행비자를 신청하여 취재요청 초청장을 발부받고 출발 이틀

전에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 첫 촬영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였다. 인천공항에서 홍콩을 거쳐 요하네스버그공항까지 가는데 비행시간 17시간과 대기시간 8시간 총 25시간의 지루하고 고된 시간을 보냈다. 남아공은 1994년 흑인 최초의 대통령인 만델라 정부 출범 이후 흑인들의 위상이 달라졌다. 흑인 성인 인구의 10%가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상의 중산층으로 부상하면서 최대 소비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기회로 한국의 전자, 자동차, 가발 등 관련 업체들이 규모를 확대하고 새

로운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한국인 수도 계속 늘고 있어 현재 약 8,000명 정도가 남아공에 거주하고 이곳 요하네스버그에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한다고 한다.

우리는 취재를 마치고 가이드 한테철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와 한식전문점 '대장금'에 서 숙식을 해결했다. 특히 이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TV이다. 글로벌 YTN은 고정채널로 음식점과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는 것이다. 이곳 아프리카에서 YTN뉴스는 한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며 구심점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에 대한 소식을 나보다 더 많

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YTN 취재인인 우리에게 대한 관심도 많아 이번에 취재한 내용이 언제방송이 나가는지, 방송분량은 몇 분인지 등 궁금한 것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도 한국과 같은 시간에 라이브로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취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프리카 두 번째 취재국가인 나이지리아행 비행기를 탔다. 나이지리아는 무장폭도세력들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 중이고, 말라리아 등 풍토병이 많은 지역이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7위의 산유국이며 인구는 1억 7천이 넘는 인

구대국이다. 경제성장률도 7% 전후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취재는 부패한 정부와 종족 간 갈등으로 불안함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도 숙식도 게스트하우스에서 해결했다. 방마다 모기장이 준비되어 있었다. 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 게스트하우스는 한국기업의 주재원이나 비즈니스로 이곳 라고스에 잠시 머무르는 한국인들이 주 고객이다. 게스트하우스의 최대 자랑거리가 있다. 거실 한가운데에 위치한 56인치 디지털TV이다. 아침 식사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손님은 TV에

나오는 글로벌 YTN뉴스를 본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TV를 시청하는 중에 대우건설 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YTN에 대한 고마움을 말로 표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곳 나이지리아는 치안이 불안하여 외출이 어렵고, 여가 활동은 더욱 어려운데, YTN을 시청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다.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다.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보다 취재여건이 열악했지만 YTN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을 직접 체험한 소중한 일정이었다.

용성욱 | 한국방송제작단 대표



한인섭(남아공 YTN리포터),용성욱(연출),전태수(카메라맨)
마살라 아타오(나이지리아 대우오토렌드 직원의 가족과 함께)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준 YTN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아준 YTN에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시작은 2010년 8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서비스 추진을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필자를 비롯한 20여 명의 TF팀이 1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했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 검증, 위치오차 개선, 112시스템 정비, 현장 경찰관 훈련, 이용자 홍보·모집·교육 등 세밀한 준비 단계를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범사업 기간 '원터치 SOS'에는 60만 명 이상이 가입했고 '112앱'은 12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아동 성추행 피의자 등 25건의 검거 및 구조 실적을 올렸다.

서비스 대상 지역과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성과와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언론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다. 시범사업 발표 당시부터 거의 모든 진행상황을 세세하게 국민에게 알려 관심을 높였고 더 완벽한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낸 중요한 촉매제였다.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규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아준 YTN에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허위·장난 신고 등을 없애기 위한 국민의식 고양에도 일조해 국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견지해주기 바란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에서 보여준 범죄예방시스템은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지해사전에 범죄자를 체포함으로써 시민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그려진다. 영화처럼은 아니더라도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와 안전에 대한 심리적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운영 경험은 앞으로 다른 분야와 융합되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소중한 우리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위해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러 이용방법을 알아보고 이른 시일 내에 가입하기를 당부 드린다.



3월이면 고등학생이 되는 딸아이의 전화,

“아빠, 경찰서에서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응, 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주 쉽게 경찰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야. 아빠가 이 서비스 만드느라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 집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줄게” 퇴근길, 이 서비스를 위해 준비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면서 딸아이에게 비칠 멋진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니 얼굴이 저절로 환해진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아동·여성 등이 위급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서비스다. 구두로 위급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기존 112신고와는 달리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범인이 모르게 버튼 하나로 말 없는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범죄예방 시스템이며, 이용자는 보유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 '112앱', 'U-안심서비스' 중 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대상자는 국의 미성년자 및 전 여성이며 미성년자나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는 인근의 경찰관서를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112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강원석 |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장

무엇을 지향하고 담아낼지 많이 고민해야 ...

— 김정아 | 제작팀 —



不惑, 나이 40세를 지난지도 조금 시간이 흘렀다.

한때 불혹이란 나이가 되면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없이 미동도 하지 않는 평상심을 지닐 줄 알았었다.

하지만, 그저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살면서 늘 그래야지 하면서 대부분 그러하지 못했다. 마흔이 넘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그것들을 체화시켜 스스로를 대견해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아직 나는 그러한 성숙함과 평상심을 지니지 못했다. '불혹은 그런 나이가 아니고 그래야 하는 나이에 불과하다.'라는 남편의 말을 위로로 삼고 싶을 뿐이다.

어느새 아이 둘의 엄마가 되고 남편과의 결혼도 12년을 훌쩍 넘어 버렸다.

살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된다. 우리가 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아주 잘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제들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혹 간과한다.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교양¹⁾이란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 있다.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알아야 하는 것으로는, 갈등들은 아주 신속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순환논리에 빠지며 모순을 가지게 된다는 점, 듣는 상대방은 화자의 말뜻을 전혀 다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항상 있다는 점(중략), 의사소통에 관한 의사소통은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영원한 미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중략) 따위가 있다. 의사소통은 그렇게 형태가 다양하며 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칙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것이 교양에 속한다.”

달리 살아온 사람들이 쉽게 상대방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결론에 대해 바로 공감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



작년 12월 어느 날, '공감 인터뷰'를 해보겠냐는 전화를 받았다. 방송인으로서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지 잘 알지만, 흔쾌히 답하지 못했다.

방송을 하고 싶어 방송사에 입사했고, YTN 개국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 일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카메라 앞에서 앵커로 15년, 취재부서와 편집부에서 4년 남짓의 시간도 지나고 보니 눈 깜짝할 사이였다. 하지만 아직 매사 자신이 없다.

변변한 의자 책상도 없었던 미완의 사무실에서 시작해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뉴스를 생각하며 살았던 20대, 어렵고 두렵었지만 가슴 뛰며 보냈던 그 하루하루를 기억한다. 시청자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보람과 책임감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에 당당할 수 있을 줄 알았었다.

하지만 공감 인터뷰를 맡아 일하고 있는 지금, 부족한 나를 절감한다. '공감인터뷰'가 무엇을 지향하고 담아내야 하는지 앞으로도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배려와 공감'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고민스럽다.

경향없이 시작하다보니 마음의 말을 제대로 못했다. 지면을 빌어, 밤을 낮 삼아 열정으로 일하는 이동순 PD, 아무진 박수진 AD, 아름다운 자막으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적셔주는 조은이, 김민정 작가, 늘 좀 더 나은 화면을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박윤호, 황선욱 감독, 그리고 바쁜 취재 일정 속에서도 공감까지 챙겨주시는 촬영기자 선배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한다.

1) 디트리히 슈바니츠 지음 인성기 외 옮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교양” 들녘 2001

김생민의 프로파일 파헤쳐라,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숨은 진실

— 김생민 | <김생민의 프로파일>진행자 —



‘나’와 ‘프로파일’

나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다. 때마침 <김생민의 프로파일>제이기가 왔고,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김생민의 프로파일>은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진실을 파헤치며 그로 인한 사회현상을 보여주고 사건을 주도면밀히 파헤쳐 가며 시청자가 알고 싶은 숨은 진실을 알게 해 줄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鳥飛梨落’

우리가 뉴스에 눈을 두고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은 ‘왜’가 나올 때이다. ‘왜’ 살인을 저질렀나. ‘왜’ 자살했을까 이끌려 우리는 그 ‘왜’를 추적하게 되었다. 사건의 이면을 바라보고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왜’의 실체는 때때로 우리를 감동시켰고, 또한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였다. 그로 인해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방치한 고등학생에게서 아동학대의 참혹한 진실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피해를 낸 방화범죄자들은 결국 사회와 단절된 자선들만의 소통 방식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4회 ‘펫로스 증후군’이었는데, 나는 타사의 동물 프

김생민의 프로파일

방송 YTN SCIENCE 금 22:00

내용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건·사고의 원인과 과정, 해결책을 제시한다.

로그를 오랫동안 진행하면서도 애완동물을 자식만큼이나 애정을 쏟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곤 했었다. 특히 애완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그 상실감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김생민의 프로파일>을 통해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애완동물을 사랑했으며, 매 순간을 함께하며 자신만을 바라봐주던 각별한 친구와의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견디지 못해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에 숙연해졌다.

온고자신의 마음으로....

<김생민의 프로파일>은 잊혀지거나 숨은, 혹은 무심코 지나치는 사건을 그저 다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이면을 바라보며 사회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생민의 프로파일>의 목표는 분명하다. 개인의 비극적 사건일지라도 그것은 명백히 현대인의 모습이다. 개인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그것을 직시할 때, 계속되는 문제의 골레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김생민의 프로파일>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김학도의 판도사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실들, 그 속에 반전이 있을 줄이야...

— 김학도 | <김학도의 판도사>진행자 —



따르릉~

“네 YTN사이언스
김수민 작가라고 합니다.”

“네? YTN사이언스요?”

지난 12월 중순경 받은 한 통의 전화. 대한민국의 과학채널 YTN사이언스 그리고 뉴스 전문채널 YTN에서 섭외 전화가 온 것이다. 이미 몇 번의 뉴스 보도로 알고 있었던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된 YTN. 그렇기 때문일까? 'YTN'이라는 명성으로 구미가 확 당긴 건 사실이었다.

‘어떤 프로그램일까?’ ‘뉴스 같은 시사프로를 진행하는 걸까?’, ‘진중한 모습으로 사회의 인사들과 무거운 대담을 나눠야 하는 걸까?’ 이런저런 상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 알쏭달쏭한 생활상식들을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 주는 프로그램,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줄여서 ‘판도사’라고 했다.

‘산성비 맞으면 대머리 될까?’, ‘라면, 면과 스프 중 어느 것을 먼저 넣어야 맛있을까?’,

‘공포영화를 보면 체온이 내려간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실들. 그런데 그 속에 반전이 있을 줄이야...

교과서에서 배웠던 산성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내리는 비의 pH 농도는 산성이 아닌 중성이고,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으면 물의 끓는점이 높아져서 면이 더 쫄깃해지고, 공포영화를 보면 처음엔 체온이 올라가지만, 그 때문에 흘린 땀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 것 등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가 알고 보니 잘못된 속설이고, 그 속에는 모두 깊은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었던 것이다.

김학도의 판도사

방송 YTN SCIENCE 화 21:00

내용 재미있게 풀어보는 생활 속 과학 상식

그 어느 때보다 두근거렸던 판도사의 첫 녹화

분장실에서 분장을 받으면서 TV로 자주 보았던 반가운 YTN 앵커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뵈운 분은 호준석 앵커였다. 개인적으로 호 앵커님께서 문성근 씨가 출연했을 때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에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에서 팬이 됐다. 그밖에 YTN 앵커와 기상캐스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YTN의 사내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 (내심 정찬배 앵커도 뵈고 싶었는데 아직 못 만났다.)

그 용사들 가운데 한 분이 또 김학도의 판도사 멤버이다. 바로 차현주 기상캐스터. 생방송으로 다져진 그녀의 똑 부러지는 진행능력은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깔끔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패널, 개그생활 8년 차인 후배 개그맨 현병수. 판도사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과학이야기를 자신의 개그본능을 백분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매주, 어떤 주제가 재미있을까를 고민하는 열혈제작진과 나를 비롯한 패널들의 환상궁합은 앞으로도 정보제공과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여러분의 안방으로 배달해 줄 것이다.



박상원의 WHY&HOW 색깔 있는 과학 시사 프로그램이 되기를 ...

— 박상원 | <박상원의 WHY&HOW> 진행자 —

벌써 1년, “한층 친밀해진 과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의 WHY&HOW> 박상원입니다.”

이렇게 첫 인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지난 1년 <박상원의 WHY&HOW>는 과학계의 새로운 소식과 이슈들을 발 빠르게 전해왔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평소 갖고 있던 과학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다는 점이 저로서 큰 소득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자니 문득 시청자 여러분에게 <박상원의 WHY&HOW>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진행자로서 욕심이 있다면 많은 이들에게 <박상원의 WHY&HOW>가 과학적 지식과 호기심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과학을 한층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겁니다.

과학 전문 프로그램 진행은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

처음 <박상원의 WHY&HOW> 진행을 제안 받았을 때 잠시 망설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간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었지만, 과학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은 처음이라 부담이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도전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는 법! 도전해 보기로 했고, 지금은 그 선택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했던 과학,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과학이 한 겹 두 겹 그 껍질을 벗으면서 새롭게 다가왔으니까요. 새로운 도전은 많은 숙제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더불어 전혀 몰랐던 세계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박상원의 WHY&HOW>는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상원의 WHY & HOW

방송 YTN SCIENCE 금 21:00

내용 가볍게 지나쳤던 과학이야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며, 이슈가 됐던 사건·사고 현장을 찾아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다.

앞으로 욕심이 있다면

“시각과 색깔이 있는 과학 시사 전문 프로그램이 되기를 ...” <박상원의 WHY&HOW>는 과학과 시사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계 뉴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 그게 아마 <박상원의 WHY&HOW>가 가진 힘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박상원의 WHY&HOW>만의 시각과 색깔이 분명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저는 그 시각과 색깔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시청자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진행자가 되겠습니다.





남대문 산악회에 놀러 오세요



5월 어느 날 정식회원이 되어 처음 따라간 오대산 노인봉. 산길 이랄 것 까지도 없는 야트막한 언덕길을 두세 시간 올라 정상에 도착. 이게 뭐야. 생각보다 힘도 별로 안 들고 많이 아쉬웠다. 1년여를 북한산에 오르며 체력 단련한 내가 허탈해지기까지 했다.

“이 정도 산행이라면 굳이 몸만들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이라는 짧은 생각으로 첫 산행을 다녀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산악회 가입 전 영암 월출산 산행기를 사보에서 읽고 민폐가 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체력이 되어야 한다는 짧은 생각으로 1년여를 준비했던 것이다.

“산이 거기에 있어 오른다”는 혹자의 깊은 뜻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지만, 몸만들기를 위하여 혼자 북한산을 오르내릴 때 진정한 힐링을 맛볼 수 있었다. 산길을 오르며 학~학~ 숨을 몰아쉬는 때 얼굴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과 숨을 고르며 잠시 둘러보는 풍경은 이미 나 자신을 치유하는 약이 되어있었다. 두 다리의 근육과 관절에 힘이 붙고, 숨어있는 지방들이 뜨겁다며 타서 사라진다. 장 기능이 개선되어 불편하던 속이 편해지고 땀과 함께 노폐물도 몸 밖으로 배출됐다. 피부도 좋아졌다고 마누라가 한마디 던진다.

산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 산악회 가입 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인연들. YTN의 모든 부서원이 고르게 모이고 계급장 떼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모습들이 정경기만 하다. 형님! 아우! 하면서 산행을 하다보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서로 멘토가 되어 서로를 치유해 준다.

금강산, 한라산,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 둘레길, 오대산, 연인산, 소요산,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 등 뒤돌아보니 꽤 많은 곳에 족적을 남긴 YTN 산악회. 매번 산행을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조용원 회장님과 박종대 총무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박종대 총무는 산행 공지부터 교통편, 식



금강산, 한라산,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 둘레길, 오대산,
연인산, 소요산,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



사등 모든 일정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챙긴다. 아침가리 계곡에서 발목인대에 심한 부상을 입고도 회원들 신경 쓰일까 봐 쉬쉬하며 버틴 산과 닮은 산사나이 임이 틀림없다.

본인이 산악회 회원인지도 잘 모르시는 '우수회원'들 덕에 나 같은 '불량회원'은 늘 감사하게 산행에 참석하고 있고 느지막이 가입하신 이계성 국장님도 점차 불량회원 클럽에 가까워지시는 모습이 정겹다.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여유 있게 다니는 산행이 좋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 사발이 좋고 또



산악회 회원들이 좋다. 늘 그렇듯이 출발 전엔 바쁘고, 술자리 약속이 있고, 아침근 무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귀찮다 해도 산에서 내려올 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YTN 산악회는 급하거나 느릴 것도 없고, 적당히 배를 채우거나 비울 줄도 아는 늦가을 산길에 묻어 들어가는 색이라 할 것이다. 다음엔 어느 산으로 갈지 박 총무의 메일이 기다려진다. 놀러 오세요 YTN 남대문 산악회에 ~

변재철 | 차장대우 영상아카이브팀

● — NOTICE BOARD

입사 | 임정우 마케팅기획팀, 김도영 마케팅팀 21

전보 | 정재훈 LA지국장, 이광엽 국제부 215 / 김원배 뉴욕지국장, 이재운 국제부 21